한국어 · 베트남어 대비를 통한 문법 교육

조명숙*

1. 머리말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모두 농경문화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영어의 'rice'를 일컫는 단어를 'mạ(모), lúa(벼), gạo(쌀), cơm(밥)'으로 각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도 쌀이 주식이며 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설, 단오, 추석을 민속 3대 명절로 지키며 쌀이나 찹쌀로 떡을 만든다.

언어적인 면에서도 두 언어는 표음 문자라 하겠다. 언어 계통 분류상 한국어는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이며 조사에 따라 어순이 자유로울 때도 있지만 SOV어순이다. 그러나 베트남어는 고립어(isolating language)에 속하고 어순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SVO어순 언어이다. 베트남은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로서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한 기간은 20세기가 넘는다. 따라서 현대 베트남어 어휘 중 한자어가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자어는 그 발음이 한국어 발음과 유사하

* 베트남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며 일정한 대응규칙을 보인다. 이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자기나라의 언어를 '국어(國語, Quốc ngữ)'라고 하며 'Ngữ văn(語文)'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은 나라 베트남에 1994년 한국학과가 설립되어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이후 2005년 현재 8개 대학에 한국학과가 설립되었고 전공 이외의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을 포함하면 모두 14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조명숙, 2005). 이렇게 한국어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대학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화와 언어 면에서도 유사성이 많아서 가깝게 느껴지는 한국과 베트남의 언어 대비를 통해 효과적인 문법 교육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적 언어 교육 방법이 대두되면서 문법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문법적인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과연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며 느끼는 것은 학습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문법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도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와 한국어 간 유사한 현상을 알면 더욱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본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 교육에 있어서도 대비 분석을 통한 결과를 갖고 교육을 한다면 한국어 학습 효과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비교가능성(Vergleichbarheit)이 전혀 없어서 모국어 간섭을 많이 받는 문법 내용인 경우 베트남 대학생이 이미 학습하여 알고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 등 제3 언어의 문법 내용과 비교해서라도 한국어 문법 항목 이해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문법 교육은 이론에 그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창성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문법 대비 결과는 학습자의 오류를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오류의 원

인을 밝혀주어 오류의 수정 시간을 단축하거나 수정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실용적인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한국어교육 경험자들에 의해 한국어 학습자 오류를 분석하는 작업이 많이 시도되었지만 대체로 오류가 어떠하다는 오류 유형이나 오류의 빈도를 모아 제시한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왜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연구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법의 대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졸고에서는 먼저 대비에 앞서 한국어 문법 교육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였다. 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적인 대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법 항목에 집중하여 서술하지 않고 너무 방대한 줄 알지만 대비 범위를 넓게 잡았다. 우선 한국어 생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생성과정이 어떠한지 서술한 후 음절구조, 음운체계, 단어, 품사, 두 언어의 어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어, 어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베트남인 발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아봄으로써 베트남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한국어 문법 교육 현황

현재 베트남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은 언어 기능에 따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과목을 따로 교육하고 있다. 평가도 각각의 기능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다. 초창기 베트남에서 한국어교육은 교수 1-2인이 통합식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고 평가는 2개 영역(말하기+듣기, 쓰기+읽기)으로 묶어 평가했다. 얼마 전까지도 한국어 문법 과목은 주로 쓰기 영역에 포함되었다가 최근에 문법 교육을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교육하는 대학이

늘어 한국어교육은 총 5개 영역으로 5명의 강사가 맡아 실시하고 있고 평가도 각 영역별로 담당 강사가 하고 있다. 베트남 대학은 문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어 문법 교육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두고 있는지 아직 통합식 교육을 실행할 교육 환경이 못 되어 이러한 외국어 교육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지만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통합식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연구되고 있지만 현재 베트남에 적합한 교재는 종합형 한국어 교재보다는 기능별로 지도할 수 있는 학습 교재이다.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법 교재로는 연세대 출판 <연습 및 활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workbook, Korea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베트남어 번역판)이다. 이 중 연세대 출판 <연습 및 활용>을 교재로 주로 쓰는 학교가 많은 것은 베트남 강사들이 자신이 이미 배웠던 교재라는 이유도 있고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수업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습자는 말하기 능력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문법 연습용 예문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법도 이해하며 그 문법 내용 학습이 실제 발화에 사용될 수 있는 문법 교재를 원한다. 학습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원하기 때문에 문법 설명은 가능한 한 두 언어의 대비 결과를 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법 교재도 문법 항목의 대비 결과를 활용하여 구성한다면 효율적인 학습 교재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사성을 지닌 문법 항목은 지면을 적게 할애하고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조사, 어미 활용, 음운규칙 등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실제로 활용되는 문법 항목의 사용 빈도 수에 따라 교재를 구성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용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대학에서의 문법 교육은 거의 현지인 강사들이 맡고 있다. 베트남에는 아직 한국어 문법 전공자가 거의 없다. 베트남 강사들 경우 현장 경험은 많지만 한국어에 대한 이해, 언어학적 배경이 부족하여 가르

치는 것이 전수 차원이라서 한국어 문법과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베트남 교육부는 원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대학 강사들의 자격을 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가진 자라야 강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베트남 8개 대학 베트남인 한국어 강사 중 석사 학위소지자는 현재 10명이고 이들도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수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기를 시작하면서 강사들이 실라버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도 없다.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들 간의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지인 강사들은 강의 시간은 많으나 대우나 보수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분주하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대학 강의를 맡고 있어서 연구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 이들의 현주소이다.

문법 강의 시간 수는 1-4학년까지 주 당 3시간(시간 당 45분)인데 3시간 속강으로 진행된다. 베트남 대학은 교수진 부족으로 시간 강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모든 과목을 속강으로 진행하고 있다.

3. 한국어 · 베트남어 문법 대비 분석

대비언어학(Konfrontative Linguistik)의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의 분야가 확대된 덕분에 이 연구 방법을 통하여 전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 언어학적인 대비의 결과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과 언어 습득을 위해서도 응용될 수 있다. 대비에 앞서 베트남어 생성과정을 소개하여 베트남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3.1. 베트남어의 생성 과정

베트남은 일찍부터 한자를 문자로 사용하였다. 베트남 역사를 살펴보면 10세기에 걸친 기나긴 북속(北屬)기간(BC 179-AD 938)에 베트남인들은 한족의 풍습과 법령을 따랐다. 약 2000년 이상 베트남은 고유의 공식 문자가 없어 한자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종교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가 활발히 전파되었지만 그 중에서 유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쯔뇨(chữ Nh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Nho(儒)는 유교, 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유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베트남에서도 고유 문자를 갖고자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했던 시기도 있어 한국어의 차자 표기법과 같이 8, 9세기경 쯔놈(chữ Nôm)이라는 고유 문자를 만들었다. 쯔놈은 어려운 한자의 음과 훈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여서 널리 보급하려는 조정(朝廷)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오면서 위축되었고 당시 지식층이나 관리들은 거의 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쯔놈은 베트남 공식 문자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했고 언문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자주적인 노력의 결과인 쯔놈으로 기록된 문학 작품들은 베트남 언어사와 문학사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 역사에 따르면 1553년부터 천주교 선교사들이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베트남 언어사에서 베트남어를 창제한 사람으로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 Alexandre de Rodes를 든다. 그는 1651년 두 명의 선교사들이 베트남인들의 음성언어를 라틴 문자로 기록한 두 권의 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베트남어-포르투갈어-라틴어' 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라틴화된 문자는 초기에는 선교사들이나 베트남 천주교인들에 의

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프랑스 통치 기간(1858-1954)에 공적인 명칭을 갖고 문서를 기록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였다. 1878년 프랑스 총독이 이 문자의 명칭을 'Quốc ngữ(國語)' 정하였고 1882년 당시 총독 Le Myre de Vilers의 문서에서는 'Quốc ngữ(國語)'를 베트남 공식문자로 인정하고 모든 공문에 쓰였던 한자와 쯔놈 대신 'Quốc ngữ(國語)'를 쓰도록 하였다고 한다(1998: 155, Đinh Lê Thư).

3.2. 음절의 비교

베트남어의 음절의 특징은 모든 음절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음절이 의미를 갖고 한 개의 음절이 단어가 되기도 하고 어근이 되기도 한다. 중국어와 언어 계통이 같으나 모든 음절은 띄어 쓰고 띄어 읽는다.

1) 베트남어 : Chữ/ quốc/ ngữ/ dùng/ các/ chữ/ cái/ Latin.
2) 한국어 :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3) 중국어 : 春天來花就開。

베트남어는 발음에 충실한 문자여서 거의 글자 그대로 발음이 되어 한국어처럼 복잡한 음운 변화 현상이 없다. 중국어는 4성이고 외관상 드러나는 성조의 표시가 없는 반면 베트남어는 6성이고 모든 음절에 성조를 표시한다.

베트남어에서 음절의 구조는 중국의 전통적인 어음 이론인 음운학의 분석방법을 따르고 있어서 학교 문법에 소개되는 음절의 구조는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같이 이분법이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로 나뉜다. 아래 Đoàn Thiên Thuật이 제시한 음절 구조 '1)'은 전통적인 중국 음운학을 따른 베트남어 음절구조이다. 그러나 여러 국내외 베트남어 연구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음절 모양 이외에 베트남어 음절 모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Lê Văn Lý의 음절 구조 '2)'는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를 성조의 표시 없이 한국어 음절 구조와 같이 CVC 구조인 3분법 구조를 기본 구조로 보고 이를 V, CV, VC, CVC 음절 구조로 세분화하였다. 성조를 음절 구조에서 제외시킨 CVC구조는 한국어 음절 구조와 흡사하다.

Lê Văn Lý의 모형엔 성조의 표시를 음절 구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들이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성조가 베트남어의 큰 특징이므로 베트남어 음절의 구조를 아래 '3)'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베트남어의 특성을 잘 살린 음절 구조라고 생각한다.

1) Đoàn Thiên Thuật(2002: 83):

성조			
성모(초성)	운모		
	(숨은 모음)	주요모음	종 성

2) Lê Văn Lý: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

ㄱ) V : ao(연못), áo(옷), e(걱정하다), ê(놀리다), ói(토하다).....

ㄴ) CV : ca(생선), mẹ(어머니), có(가지다), lái(운전하다), tô(밥그릇).....

ㄷ) VC : ăn(먹다), em(동생), ếch(개구리), ưa(좋아하다), uống(마시다).....

ㄹ) CVC : xanh(푸르다), thuốc(약), trồng(심다, 재배하다), pháp(법).....

3) 조 명 숙:

성조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

전통적인 베트남어 문법으로 모국어를 학습한 베트남인 학습자 경우 한국어 음절 구조를 모국어 간섭을 받아 모음 발음에 오류를 쉽게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베트남어는 풀어쓰기인데 모음 2, 3개가 한 음절 안에 있는 경우 강약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하나 모음 발음을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Lê Văn Lý의 의견에 따른다면 베트남어 음절은 성조만 있을 뿐이지 한국어 음절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결론도 얻을 수 있다.

3.3. 음운의 비교

3.3.1. 자음 비교

3.3.1.1. 초성체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두 언어의 음운 체계를 하나의 도표에 섞어 놓아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두 언어의 자음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다음 도표를 작성해 보았다.

조음방식 \ 조음위치				순 음		치 조 음		경 구개음	연 구개음	후음
				양순음	순치음	혀끝 안구부림	혀끝 구부림			
안울림소리	파열음	무성	유기	ㅍ*		ㅌ t^h				
			무기	ㅃ(p)		ㄸ t	ʈ	(ㅉ) c*	ㄲ k	ʔ
		유성		ㅂ b		ㄷ d				
	파찰음	거센소리						ㅊ*		
		된소리						ㅉ*		
		예사소리						ㅈ*		
	마찰음	무 성			f	(ㅅ) s*	ʂ		(ㅋ)X*	ㅎ h
		유 성			v	(ㅈ) z*	ʐ		(ㄱ)ɣ*	
울림소리	비 음			ㅁ m		ㄴ n		ɲ	ㅇ ŋ*	
	유 음					ㄹ l				

먼저 베트남어학에서는 없다고 하는 파찰음의 경우는 한국어학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순음의 경우 양순음과 순치음으로 이분하여 작성하였고 베트남어 특징을 살려 치조음을 혀의 구부림에 따라 분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어 음절의 초성은 자음이 담당한다. 한국어 자음 체계와 달리 베트남어의 자음은 중국어 자음처럼 유성음, 무성음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발음 시 무성음과 유성음의 변별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베트남어의 '/b/'는 조음 성격상 유성음으로만 발음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어 자음 체계를 보면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어에 유기음이 있어 한국어의 격음을 발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베트남어 경음의 경우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의 /p, t, k/와 같은 '파열음-무기음'이어서 한국어의 경음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베트남어는 순음이 양순음, 순치음으로 대립되어 베트남어의 '/f/, /v/'는 영어

의 발음과 같은 조음 위치와 방법을 갖는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양순음 'ㅍ'을 발음할 때 마치 영어의 순치음 /f/로 발음을 하기 쉬어 이 점을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어에서는 인구어와 마찬가지로 마찰음이 발달되어 있다. 베트남어 /s/, /z/, /X/, /Y/는 한국어 'ㅅ, ㅈ, ㅋ, ㄱ'와 약간의 발음 차이를 보인다. /ŋ/의 경우 베트남어에서는 초성에도 쓰이므로 한국어 학습시 모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베트남어는 파찰음이 없기 때문에 제3언어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조음법을 설명하여 보다 한국어 발음과 근접한 발음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3.3.1.2. 베트남어 자음 종성체계

베트남어 자음 종성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베트남어는 6종성이며 종성으로 쓰이는 자음의 수는 8개에 불과하다. 2종성인 중국어와 비교해서는 많으나 한국어의 종성법에 비하면 베트남어 종성법,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고유어는 7종성이고 한자어의 경우 6종성이다. 종성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잘 지도해야 한다. 특히 끝소리가 'ㄱ, ㄷ'으로 변하는 것은 간단한 규칙이라 그래도 쉽게 습득하겠지만 겹받침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이다.

종성 종류	조음위치 / 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자음 종성	유성음	m(-m)	n(-n)	ŋ(-nh, -ng)
	무성음	p (-p)	t (-t)	k(-ch, -c)

그러나 베트남 학습자 경우 한국어 종성 발음 모국어 간섭을 가장 많이 받는 종성이 'ㅇ'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어의 종성 /ŋ/은 발음과 동시에 두 입술을 다물기 때문에 베트남 학생들이 'ㅇ'의 정확한 발음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ㄹ'의 경우 베트남 종성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종성이므로 정확한 발음을 내지 못한다. 한국어사를 살펴보면(국어사개설: 74, 국어사개론: 64) 약 10세기경 한국어에는 종성 /l/과 종성 /t/가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종성 /t/는 점점 사라지고 종성 /l/이 종성 /t/를 대신하여 쓰여졌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그와 반대로 종성 /t/로 일찍이 굳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l/이 종성으로 오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외래어의 경우도 종성 /l/을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성 /n/으로 표기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이 한국어 종성 /l/을 발음할 때는 모국어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되어 종성 /n/으로 발음하여 오류를 범한다.

예를 들어 '서울'을 요즘은 베트남 신문에서 'Seoul'로 적지만 베트남인들이 실제로 '서운'으로 읽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신문에도 '서울'을 'Seoun'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Israel'의 경우도 베트남어의 외래어 표준표기법은 'Israen'이고 여러 한국인 가수나 연예인 이름도 종성 'ㄹ'로 끝나는 것은 모두 'n'으로 표기를 한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ㄹ'로 끝나는 단어의 발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발음 교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3.3.2. 모음 비교

베트남어의 모음 수는 한국어의 모음 수보다 많고 모음이 두세 개까지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 단모음의 경우 한국어에 존재하는 모음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어 모음체계(한국의 언어, 1999: 86)〉

혀의 전후위치 / 혀의 높이	전설모음 (평순)	전설모음 (원순)	후설모음 (평순)	후설모음 (원순)
고 모 음	i ㅣ	y/wi/ㅟ	ɨ ㅡ	u ㅜ
중 모 음	e ㅔ	ø/we/ㅚ	ə ㅓ	o ㅗ
저 모 음	ɛ ㅐ		a ㅏ	

〈베트남어 모음체계(베트남어, 1995: 57)〉

혀의 위치 / 입의 벌림 정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좁게 벌림	i (i, y)	ɯ (ư)	u (u)
약간 좁게 벌림	ie(iê, ia, yê, ya)	ɯə(ươ, ưa)	uo(uô, ua)
약간 넓게 벌림	e (ê)	ə, ə̆(ơ, â)	o (ô)
넓게 벌림	ɛ (e)	a, ă (a, ă)	ɔ (o)

모음 교수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모음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 교사들이 주의하여 지도할 점이라면 단모음에 대한 지도보다는 이중모음 발음 교육에 더욱 치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어 단모음의 경우 한국어 발음과 유사하지만 베트남어 이중모음의 경우 단모음을 하나 하나를 발음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y계, w계 이중모음 발음 지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 'uo'는 '우오'로 발음을 한다. 최근 남부 지방 베트남어의 발음 중에 한국어의 w계 이중모음과 유사하게 변화된 발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hoa'는 '화[hwa]'로 발음되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 w계 이중모음 학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3.3. 음운의 변동

베트남어는 음절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음절을 띄어 쓰고 또 음절마다 띄어 읽어야 하므로 프랑스어처럼 연음(liaison)되는 것도 없고 모든 음절은 자기 고유의 발음에 충실하여 앞 뒤 음절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하지 않는다. 음운이 변하는 경우는 음운 변동이 이미 된 것이 표준어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숫자 15 'mười lăm'의 경우 'mười(10), năm(5)'이지만 발음에 따라 'n'을 유음 'l'로 표기하여 'mười lăm'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을 찾으면 'mười năm'은 나오지 않으며 'mười lăm'만 소개된다. 이처럼 베트남어는 단어의 음운 변동이 없으며 음운 변동을 할 경우 앞서 예를 든 대로 읽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운동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음이 축약과 탈락, 첨가 등 음운 규칙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한국어를 표기된 대로 그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규칙을 어렵게 느끼고 학습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읽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음운 규칙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운동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음이 축약과 탈락, 첨가 등 음운 규칙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한국어를 표기된 대로 그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음운 규칙이 단순한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규칙을 어렵게 느끼고 학습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읽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음운 규칙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3.3.4. 품사와 단어의 비교

3.3.4.1. 품사의 비교

Bùi Tất Tươm(1999:79)은 베트남어 품사를 크게 실사(實辭)와 허사(虛辭)로 이분하였다. 모든 품사는 문장 내에서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이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어 품사	
실사(實辭)	허사(虛辭)
명사	부사(附詞)
동사	관계사(關系詞)
형용사	조사(助詞)
수사	감탄사
대명사	

베트남어의 명사는 베트남어 어휘 중 가장 양이 많다. 한국어의 명사처럼 조사를 동반하지 않으며 프랑스나 독일어처럼 명사의 성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한국 명사처럼 조사를 동반하지 않지만 문장 내에서 자립적으로 쓰는 쓰이는 명사가 있고 수관형사를 동반하는 의존적인 단위 명사(danh từ đơn vị)로 이분된다.

베트남어의 대명사 체계는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며 가족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 가족 관계에서 쓰이는 대명사가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nh'은 '형 또는 오빠'라는 의미인데 Mr.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들을 사이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 집, 우리 오빠'라는 말은 없지만 특이하게도 'nước ta(우리나라)'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우리'라는 단어 사용과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베트남어의 수사는 한국어의 수사의 특징처럼 고유어 계통 수사와 한자어 계통의 수사가 공존한다. 베트남어의 고유어 계통 순서 수사는 기본 수사 앞에 한자어 'thứ(序)'를 붙여 표현하고 있고 한자어 계통의 순서 수사는 기본 수사 앞에 'đệ(第)'를 붙여 표현하고 있다. 고유어 수사나 한자어 수사나 모두 그 숫자를 만드는 조어 순서가 한국어 조어법과 같아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의 수사를 학습할 때 쉽게 배울 수 있다.

베트남어 동사, 형용사는 활용이 없어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지지 않고 어미라는 문법적 용어도 없다. 이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법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어의 어미 학습이다. 베트남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어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여러 문장들도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된다.

ㄱ) 산이 높다. 山高 núi cao
ㄴ) 산이 높습니다. 山高 núi cao
ㄷ) 산이 높아요. 山高 núi cao
ㄹ) 산이 높아. 山高 núi cao
ㅁ) 산이 높으오. 山高 núi cao

어미 중 종결어미도 어렵지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한국어 어미 중 그 수도 가장 많고 연결어미 기능도 다양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보다 좀 긴 문장을 만들고 싶지만 자주 오류를 범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연결어미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어 접속사 'and, but'이 문장 안에서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듯이 베트남어 'và(=and), nhưng(=but)'은 문장 내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 연

결어미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된 상태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문장을 이해할 때 연결어미를 쉽게 알아차려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베트남어로 표현하면 한 가지로 번역이 되는 연결어미의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연결어미를 어떤 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학습자들은 판단 안 선다고 한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도하거나 적절한 쓰임의 차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문법 항목이다.

베트남어의 조사(助詞)는 한국어에서의 조사(助詞)와 한자가 똑같지만 그 쓰임이 다르다.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유사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어 조사의 특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베트남어로 된 한국어 문법책을 만들 때 용어 번역에 신경을 쓸 부분이다. 베트남어의 조사는 어떤 다른 단어 뒤에나 문장 끝에 위치하여 말의 의미를 부드럽고 친밀하게 또는 강조하도록 도움을 주는 품사이다. 대화체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어의 조사와 전혀 다른 품사이므로 한자가 같다고 하여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베트남어에서 부사(附詞)는 한국 부사(副詞)와 한자도 다르며 그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베트남어에서 부사(附詞)는 명사 앞에서 수량을 표현을 하거나 동사 앞에서 부정이나 긍정의 표현, 시제 표현, 한국어의 관형사처럼 쓰이는 표현, 형용사 앞에서 정도의 표현을 해 주는 "아주, 꽤, 매우"라는 의미의 표현도 이 품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한국어의 부사(副詞)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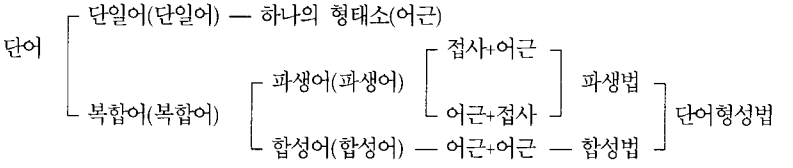
베트남어에 한국어처럼 관형사라는 품사는 없지만 한국어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가 명사의 앞에서 또는 뒤에서 꾸며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 그, 저'의 의미를 가진 품사는 명사의 뒤에 오며 '모든, 전부, 각, 한, 둘, 여러'의 의미를 가진 것은 명사 앞에 쓰이고 이것은 베트남

어 부사(附詞)의 범주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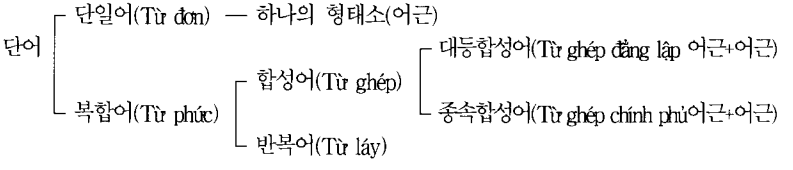
3.3.4.2. 단어의 분류와 조어법

베트남어는 한 음절이 자립성이 있어 단독으로도 단어가 될 수 있거나 다른 음절과 결합하여 어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어처럼 베트남어 단어의 분류도 단일어, 복합어로 구분된다. 베트남어의 단어 분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한국어 단어 형성〉



〈베트남어 단어 형성〉



베트남어는 복합어를 합성어와 반복어로 나뉜다. 베트남어 문법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한자어 파생접두사, 한자어 파생접미사를 베트 한자어소로 보기 때문에 이들 한자어 접사가 잇는 단어는 종속합성어 범주에 포함시킨다. 원래 베트남어에는 파생접사가 없고 실사의 경우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단어가 형성된다. 그러나 허사의 경우 파생접사처럼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음절과 결합했을 때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베트남어의 특징으로 꼽히는 'Từ láy'이다. 실제로 베트남어의 반복어는 베트남 고유어로서 한자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어

휘이고 베트남어학자들은 베트남어의 큰 특징 중의 하나로 이 반복어가 매우 발달했다는 점을 든다. 이것은 한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고유하고 독창적인 어휘로 초성, 중성, 종성이 바뀌는 등 다양한 조어법이 한국어의 반복합성어 의태어 의성어와 같이 쓰이는 점에서 유사하다.

3.3.5. 한자어 비교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어휘를 고유어, 차용어(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한다. 차용어에서 한자어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한자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자어의 비교 연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어사를 밝히는데 아주 필요한 연구이므로 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과거 한자는 인구어의 라틴어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동양의 문자였으므로 한국어 속의 한자어, 베트남어 속의 한자어 사용을 두고 국어순화운동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 언어는 언어 계통 관련하여 전혀 친족관계도 없는 언어이지만 이미 박병채(1979, 1987)에서는 고대국어의 모음 음소 체계와 고대국어의 자음 음소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어 학자로는 처음으로 한·베 음운 비교를 시도하였다. 조명숙(2003)에서는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교육을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자를 대비 모델로 삼아 두 언어의 한자음과 한자어 어휘 비교 연구를 하여 음운 대응 규칙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두 언어가 창제되기 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언어를 표기하는 수단이 한자였다. 그 결과 두 언어의 어휘 속에 수많은 한자어가 형성되었고 현대 베트남어 어휘에서 6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음의 발음은 거의 한어중고음(漢語中古音)에 기원을 두고 있다. 특히 두 언어 한자음은 일정한 대응 규칙을 보여 주고 있어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습득할 때나 베트남인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 동일한 어휘 학습 효과를 얻게 하고 단어 조어법을 이해하게 한다. 외국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차이가 적어 언어 습득 상 어려움이 보다 감소되므로 두 언어의 학습 시 한자어 어소를 활용하면 어휘 습득이 타 언어권 학습자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한·베 한자어의 특징은 명사의 경우 한자도 같으며 의미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 한자어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그러한 명사가 베트남어와 의미에서도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것은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학습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자어의 음운 대응규칙을 알면 한자 학습이 선행되지 않아도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베트남 학습자들은 이미 중학교 과정부터 한자어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한자어가 많은 텍스트일수록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품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자는 같지만 한국 한자어 명사가 베트남에서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하다'가 첨가되어 동사, 형용사로 쓰이는 한국어 한자어 명사의 경우 모두 베트남어에서 품사가 명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發展'은 한국어에서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일 경우 "-하다"가 붙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 'phát triển(發展)'은 동사이며 명사로 쓰일 경우 동사 앞에 'sự(事)'라는 명사형 음절을 덧붙이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한자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도 한자어 명사처럼 한자가 같으면 서로 의미가 일치하는 것이 많지만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와 달리 의미에 변화가 온 것과 어소 도치가 된 것도 있다.

따라서 한자도 같고 의미도 같은 것, 한자도 같고 의미가 같으나 어소 도치 된 경우, 한자가 같으나 의미의 범위가 넓거나 좁은 차이가 있는 경우, 한자가 같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 경우 등 정보를 학습자에게 주어야 어휘 사용에 정확성을 기한다. 왜냐하면 베트남 학생들은 발음도 비슷하

고 같은 한자어이니까 단어의 의미까지 똑같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오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명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베트남어에서 동사나 형용사로 쓰인 단어를 한국어의 동사나 형용사로 쓰려면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구실을 하는 접미사 '-하다, 되다'가 덧붙는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국어 단어를 설명할 때 한자어의 어근을 베트남어로 분석하여 어휘를 지도하면 어휘 확장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베트남어는 단어 내부의 구조가 고유어 어순과 한자어의 어순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인(美人)의 경우 베트남어 경우 한자어는 'mỹ nhân(美人)'이고 고유어로는 'người đẹp' 그 순서가 바뀌어 '사람(người)', '예쁜(đẹp)'이 된다. 베트남어는 한자어 경우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고 고유어의 경우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온다.

베트남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不(bất), 無(vô), 未(vị), 新(tân), 最(tối), 家(gia), 者(giả), 手(thủ), 師(sư), 人(nhân), 員(viên), 化(hoá), 然(nhiên).....' 은 한국어에서는 한자어 접사로 분류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종속합성어를 만드는 한자 어소로 본다. 이러한 한자어 접사 하나를 알고 그것에 관련된 어휘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3.3.6. 시제 비교

시제 표현을 나타내는 'sẽ(미래), định(예정), đã(과거)'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 시제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런 시제 표현 이외에도 문장 끝에 'rồi'를 덧붙여서 동사나 형용사의 마쳤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제 표현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므로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어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3.3.7. 억양

베트남어는 6가지 성조가 있고 베트남어는 문장 부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장의 억양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 따라 달라진다. 다소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의문문의 끝을 높게 하는 것, 평서문의 끝을 좀 내려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고급단계에 가서도 한국식 억양을 따라하기 어려워진다.

3.3.8. 어순 비교

한국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SOV 어순이다. 한국어에서는 격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비교적 융통성을 보이지만 베트남어는 어순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1)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한다.
2) 아이를 어머니는 사랑한다.
베트남어에서는 1) Mẹ yêu con.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다.)
2) Con yêu mẹ.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바뀌더라도 격조사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진 않지만 베트남어의 경우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3.3.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베트남 학습자에게 적합한가?

고교 문법 교과서를 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

는데 음운 체계를 비교해 보면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에 근접한 발음을 찾아 지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베트남의 지명, 인명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지명과 인명을 베트남인들의 발음에 맞도록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어를 읽었을 때 정확한 한국어 발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로마자 표기법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각 언어권에 맞는 한국어 표기법을 보급하여 보다 한국어 발음에 근접할 수 있는 발음을 학습자들이 구사하도록 해야 한다.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 제1항을 단모음 중 'ㅓ, ㅡ'를 베트남인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읽으면 '어(eo)'를 '에오'로, '으(eu)'를 '에우'로 읽어서 실제 발음과 거리가 먼 이상한 발음이 나온다. 예를 들어 '언니는'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하면 'eonnineun'인데 실제로 베트남 학습자가 이 표기법에 따라 발음한다면 '에온니네운'이 된다. 따라서 베트남인을 위한 발음을 표준화하여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법서 첫머리에 발음 설명을 넣을 경우 'eo, eu'는 베트남 모음 'ơ, ư'로 대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ㅐ, ㅔ'의 경우도 베트남에 이와 같은 모음이 있으므로 'e, ê'로 대치하는 것이 발음 교육을 위해 효과적이다. 이중모음을 단모음 하나하나 발음하는 베트남인들의 모국어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발음하도록 주의 사항으로 넣어 주어야 한다.

제2항 자음 표기법 중에서 베트남인이 한국어 자음을 보다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 자음으로 대치하여 쉽게 발음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음체계를 처음 소개할 때 'ㄲ → k, ㅋ → kh, ㄸ → t, ㅌ → th, ㅃ → p, ㅉ → ch, ㅆ → x'로 대치하면 베트남인의 한국어 발음이 더욱 정확할 수 있다. 'ㅍ → ph*, ㅈ → d,gi*, ㅅ → s*'의 경우는 영어 발음을 이용하여 비슷한 음을 제시해 주고, 'ㅇ'은 종성으

로만 쓰인다는 것 등의 정보를 주면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표기법을 만들면 베트남에서 출간되는 한국어 교재에 통일성 있는 발음 목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은 초창기에는 한국어 문법 교육이 쓰기에 통합되었다가 현재는 독립된 과목이다. 요즘 한국에서 지향하는 교수법이 통합 교수법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강사가 부족하고 학습자가 초급일 경우 종합적인 교재 하나를 가지고 4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까지 지도해 왔다. 통합교수법에서 문법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지만 문법적인 하위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든든한 기초 위에서 한국어 4가지 기능이 골고루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문법 교육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학습자의 오류 근본원인을 밝히고 수정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실용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졸고에서는 베트남인에게 보다 쉽게 한국어 문법을 지도하고 문법 내용의 범위를 넓게 잡아 한국어·베트남어의 비교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여러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 내용		한국어: 교착어	베트남어: 고립어
어순		SOV	SVO
음절		CVC	CVC, 성조 있음
초성	유 · 무성음	구분없음	구분있음
	평 · 격 · 경음	있음	있음
	순치음	없음	있음
	파찰음	있음	없음
	/ŋ/	초성에서 음가 zero	초성에서 음가 있음
종성	종성법	7종성법(한자어는 6종성법)	6종성법
	/l/	종성에 옴	종성에 올 수 없음
	/ŋ/		소리를 낸 후 두 입술을 모음
	겹받침규칙	복잡	아주 간단
모음			삼중모음도 쓰임
음운변동		음운변동 복잡	음운변동 경우가 적음
품사	명사	조사발달	조사없음
	수사	고유어, 한자어수사 구분	고유어, 한자어수사 구분
	동사, 형용사	활용, 어미복잡	활용없음, 어미없음
한자어	품사변화 시	'-하다, -되다' 덧붙임 → 동사	명사화 음절 덧붙임 → 명사
	한자어접사	인정	인정하지 않고 어소로 봄
어휘		고유어, 차용어, 외래어	고유어, 차용어, 외래어
시제 선어말 어미		있음	없음

베트남 대학은 한국어 문법 과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별 문법 교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문법 교재에 문법 항목의 이러한 대비 결과를 활용하여 유사성을 지닌 문법 항목은 지면을 적게 할애하고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조사, 어미 활용, 음운규칙 등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실제로 활용되는 문법 항목의 사용 빈도 수에 따라 문장을 제시한 교재들이 나온다면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법 항목별로 연구된 것이 거의 없고 현지

에서 출판되는 문법책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내용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대학 교재로는 적합한 것이 없다. 베트남 경우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점점 늘어가지만 한국어교육에 관하여 아무런 기반이 없는 형편이고 문법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내 권위 있는 문법 학자들의 참여와 이들의 검증을 통하여 베트남어로 된 통일성 있는 한국어문법서가 먼저 모델로서 소개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많은 문법 항목별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최근 영어로 된 문법책들이 한국어 문법 용어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어 오히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문법 용어의 체계를 세우기에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자간 협력 연구를 통해 속히 베트남어로 된 한국어 문법책이 발간되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문법 교육, 대조 언어 분석, 한국어, 베트남어

참고문헌

고영근 · 남기심(2000), 『고등학교 문법자습서』, 탑출판사.
고영근 · 남기심(2005), 『7차 고교 문법자습서』, 탑출판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7차)』,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건환(1996), 『대비 언어학- 이론과 응용』, 청록출판사.
김방한(1992),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 본 논문은 2005. 12. 2 투고되었으며, 2005. 12. 6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12 심사가 종료되었음.

민현식(2000), 「제2언어로서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여름호』, 국립국어원.

민현식(2002),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병채(1979), 「고대국어의 자음음소 체계에 대하여-SK와 SV의 비교를 중심으로」, 『말』 4, 연세대.

박병채(1987), 「한국 한자음의 모태와 변천」, 『국어생활』 8.

박병채(1987), 「고대국어의 모음음소 체계에 대하여-SK와 SV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글』 19호, 한글학회.

박병채(1996), 『국어발달사』, 세영사.

박영순(2002),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이관규(2005), 「한국어의 이해: 학교 문법」, 『동남아/서남아 한국어 교육자 초청 연수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국제교류재단.

이돈주(1994), 『한자음 연구』, 학연사.

이익섭·이상억(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해영(2003),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 『국어교육』 113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조명숙(2002), 「베트남 대학 내 한국어 교육 현황과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명숙(2005),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론』III, 한국문화사.

Bùi Tất Tươm(CB)(1995), *Giáo trình Tiếng Việt*, Nxb. Giáo dục.

Cho Myeong-sook(1998), "Nghiên cứu về Tiếng Hàn và Tiếng Việt dành cho người Hàn", Luận văn Cử nhân, ĐHNNHà Nội.

Cho Myeong-sook(2000), "Nghiên cứu về quá trình hình thành cách đọc Hán-Hàn và Hán-Việt", Luận đề Hội thảo hữu nghị Hàn Việt, ĐHNNTH Tp.HCM.

Cho Myeong-sook(2003), "So sánh lớp từ Hán-Hàn trong Tiếng Hàn và từ

Hán-Việt」 trong Tiếng Việt", ĐHKHXH&NVTp. HCM. Luận án Tiến sĩ,

Đinh Lê Thư · Nguyễn Văn Huệ(1998), *Cơ cấu Ngữ âm Tiếng Việt*, Nxb. Giáo dục.

Đoàn Thiện Thuật(2002), *Ngữ âm Tiếng Việt*, Nxb. ĐHQG Hà Nội.

Lê Văn Lý(1948), *La parler Vietnamien*, Nxb. Hương Anh.

Lê Quang Thiêm(2004), *Nghiên cứu Đối chiếu các Ngôn ngữ*, Nxb. ĐHQG Hà Nội.

Nguyễn Tài Cẩn(1997), *Giáo trình Lịch sử Ngữ âm Tiếng Việt*, Nxb. Giáo dục.

Nguyễn Tài Cẩn(1998), *Ngữ pháp Tiếng Việt*, Nxb. ĐHQG Hà Nội.

Nguyễn Tài Cẩn(2004), *Nguồn gốc và quá trình hình thành cách đọc Hán Việt*, Nxb. ĐHQG Hà Nội.

Trường Hữu Quýnh · Đinh Xuân Lâm · Lê Mậu Hân(2005), *Đại cương Lịch sử Việt Nam*, Nxb. Giáo dục.

■ Abstract

A Study on Korean Grammar Teaching in Vietnam Universities and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of Korean with Vietnamese Language

Cho, Myeong Sook

Since 1994 when HoChiMinh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Korean Studies Department and began to study and teach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s and interests have been developed rapidly and popularly among teachers and students. At present in Vietnam, nine Universities are running Korean Studies Department for their four year bachelor(B.A) course and other five Universities are teaching Korean Language as an optional foreign language in their course.

Korean Language in Vietnam Universities is being studied and taught in four sections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At the first stage when Korean Studies Department was just established and opened, Korean Grammar was taught mainly during the writing class. It was not separated yet at the first stage. But nowadays in the most of all the Vietnam Universities, they are teaching Korean Grammar as an independent and separated subject. This means that they recognize Grammatical Competence is very important in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also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much needy for grammatical knowledge.

However until now, Korean Grammar has been taught mainly through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s, which has caused Korean Language learners to

recognize Korean Grammar is an very difficult subject. Meanwhile, when teaching Korean grammar in Vietnam, if applying Contrastive Linguistic Methods on Korean with Vietnamese Language and researched analysis results of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two languages, it will surely be much helpful and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for Korean Grammar teaching and leaning alike. Therefore, for studying the more helpful and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wo languages and analysis of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Grammar.

In concrete, the following parts are being presented in this study: each comparison and analysis results of Consonant, Vowel System, Character, Word, Park of Speech, Sino-Korean and Sino-Vietnamese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Languages. Also the transcription suitable for the Vietnamese Korean-language learners is suggested.

Especially, teaching the phoneme contrastive rules in Sino words origin is much helpful for the learners to remember and memorize Sino-Korean words much easier and correctly. Continuous contrastive linguistic study result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Languages will surely be much helpful and effective in Korean grammar teaching classes for the teachers and learners alike. It will also be more essential and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Grammar text books for the Vietnamese learning Korean.

[Key Word] grammar teaching,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sino-Korean, Vietnamese